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6월

선교편지 제 132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WTC)가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로 인하여 붕괴된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약 3,000여명이 사망하고, 6,000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트라우마로 시달리게 되었고,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멀 (Normal)'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겪어야 하는 새로운 '노멀'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라와 공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탑승전 3~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검색대를 지나기 위해 외투와 신발을 벗어야 하고, 허리 벨트까지 풀고, 물병은 버리고, 노트북과 같은 전자 기기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금속 탐지기 문을 통과하고, 옷 속까지 투과가 되는 스캐너 (Security Scanning System)를 지나야 합니다. 이렇듯 비행기 탑승을 위한 절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 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써 20여년이나 익숙해진 '노멀'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무슬림들과 공존하고 있고, 크고 작은 테러가 늘상 반복되는 이곳 선교지에는 일상 가운데 별도의 '노멀'이 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도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탑승자들은 모두 내려 혹시 무기류가 있는지 소지품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 은행, 상가등과 같은 공공 건물과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검색대를 통과하여 소지품을 검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소매업소들도 총기를 소지한 자체 보안 요원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모든 차량은 폭발물 탐지 장비로 차량 밑과 차량 내부를 확인한 후에야 파킹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매주 식료품을 사는 상가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차량 검색과 한 번의 소지품 검색을 거친 후에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상가 안에서도 업소마다 별도의 보안 요원의 검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수속이 복잡하고 성가신지 모릅니다. 테러 이전의 보편적인 일상이 허물어 지고 복잡한 '노멀'이 추가되었지만, 어느 덧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COVID-19 사태로 나라마다 미증유의 혼란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다시 새로운 다양한 '노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과 대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 선교지도 필사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와 모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생기고, 한 가정에 한 장만 발급된 Pass를 가진 자만이 식료품과 약품을 살 수 있는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



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가에 도착하면, 제한된 인원만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1미터 간격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입장이 가능한 위치까지 이르면, 외부에 임시 설치된 수도에서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소독하는 발판을 지나야 하고, Pass와 ID를 확인한 이후에 비접촉 체온계로 열을 측정하여 합격(?)된 자만이 입장하는 새로운 '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급증하는 가운데, 이곳은 6월1일부터 각종 봉쇄 조치들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형편이 COVID-19 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물맷돌과 같이 보잘것 없이 보이는 새롭게 급조한 '노멀'에 안전을 맡기고, 골리앗같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삶의 공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 연결 사회로 전환되는 4차 산업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화려한 행복의 정점을 향해 뿔내고 달려 가다가, 한순간 바벨탑처럼 무참히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 속히 전염병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왕상 8:50)

 작년 초, 이곳에서 가족처럼 7년여간 정들었던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집 뒷마당에 묻어주고, 상실로 인한 여운으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계획에 없던 '어미 개와 2 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또 다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 밤 사이 목줄이 있는 어미 개와 갓 낳은 강아지 새끼 3 마리를 집 근처에 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새끼 강아지 1 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 2 마리도 부실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한 식구가 되어 돌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COVID-19으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집에 따라 키우던 개를 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곳 현지 뉴스에, 최근 심해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갓난 아이를 남의 집이나 사업장 앞에 몰래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은 산모가 병실이 아닌, 병원 밖 마당의 탁자 위에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출산하는 사진과 함께 오늘날의 처참한 형편을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문자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연락을 하는 교인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으로 민망하고 참담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생계를 꾸려 왔던 일자리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은 식구들이 속수무책으로 도움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단발적 지원은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의 끈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더 든든하게 서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연약하게만 보였던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치 정오의 빛처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교우와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라모스' 집사님은 교회의 섬세한 신경 조직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연락하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아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일린' 집사님은 장학 사역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학교 선생이 되고, 결혼을 하여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여 집사님인데, 거의 석 달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 비어있는 교회를 남편과 함께 매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여섯 딸의 가장인 '오지' 성도님은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성품 인데,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성경 필사'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어린 딸로부터 모든 식구가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가 도리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3-25)

 이번 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열린 예배'와 '열린 경배와 찬양'을 추구해 왔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 도리어 교회의 문이 굳게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중에도, 또한 14세기의 흑사병이나 세계대전 중에도 열려 있었던 교회의 문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교회의 문이 닫히는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이전에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들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면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하는 선교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도 지금의 우리 세대가 여행을 자유롭게 했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선교를 위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발이 묶여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기를 통하여 어렵게 떠나 가기도 했지만, 이곳으로 새롭게 들어 올 수 있는 길도 막혀서 선교를 위한 왕래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외적 상황 가운데, 이곳 선교지에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계와 불신, 불안과 무기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지만, 놀랍게도 도리어 이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예전같지 않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감당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17)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